

스탈린의 항구적 작전요소 원칙과 북한군의 전쟁수행에 대한 연구

장성진*

본 논문의 목적은 스탈린이 제시한 항구적 작전요소 원칙을 한국전쟁을 통해 북한이 어떻게 수용하고 변용하였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북한은 한국전쟁의 준비와 결정, 수행, 그리고 전쟁 이후까지 국제정치 환경과 국내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스탈린의 항구적 작전요소 원칙을 변용, 발전시켜 나갔다. 북한군은 전쟁 이전부터 스탈린의 항구적 작전요소를 교 육받았다. 특히, 전쟁 발발 직전에는 전쟁의 도덕적 요인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강조는 시간적, 물질적 제한에 따른 선택적 결과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미군의 신속한 참전과 공군력과 해군력의 열세 등으로 인해 전략 적 예비의 부족, 후방조직의 불안정성, 그리고 전쟁 수행을 위한 조직 및 지휘 능력의 부족을 보완하지 못한 가운데 패전하였다.

김일성은 1952년 12월 고위급군관회의에서 항구적 작전요소에 대한 그의 연설로 그의 전쟁 리더십을 고양하였으며 이는 북한군 역사에 결정적 인 전환점이 되었다. 이후 항구적 작전요소는 북한군의 군사사상, 군사전략, 그리고 군사교리에 대한 기본적 토대 혹은 논리가 되었다.

주제어: 스탈린, 한국전쟁, 항구적 작전요소, 북한군 군사교리, 김일성, 총력전, 후방 공고화

* 육군 대령,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

1. 머리말

북한군의 한국전쟁 수행과정에서 스탈린의 역할과 영향력은 지대하였다.¹⁾ 이에 북한 군사전략의 탄생은 ‘스탈린의 선물’로 평가되었다.²⁾ 하지만, 스탈린이 북한군 전쟁수행의 전 과정을 결정하지는 않았다. 전술적 판단과 조치는 위임하였고, 김일성의 건의와 의견을 적극 수용하였다. 초기 한국전쟁은 김일성이 주도적으로 수행한 전쟁이었고, 북한군은 한국전쟁을 통해 북한의 특성에 적합한 전략사상과 전쟁수행 방법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소련과 스탈린의 경험은 북한군의 전쟁수행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전쟁 이전부터 북한군은 소련군의 군사교리를 적극 수용하여 군사력을 건설하였다.³⁾ ‘스탈린의 전법’이란 소련군이 역사적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발전시킨 『야전규정』에 나타난 ‘중심작전 교리’⁴⁾ 스탈린의 정치, 전략적 산물이었던 ‘항구적 작전 요소 5원칙’으로 대표된다. 이에 북한은 전쟁을 준비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의 경험과 스탈린의 연설 및 지시문 등을 이해하도록 하였다.⁵⁾

-
- 1) 대표적인 연구로는 기광서, “한국전 개입에 나타난 스탈린의 역할 실상,” 『군사』 제63호(2007), 87-112. 본 연구에서는 북한군 전쟁수행에 대한 연구 목적 성격 을 고려하여 6·25전쟁과 한국전쟁을 한국전쟁 용어로 통일하였다.
 - 2) 강성학, “북한 군사전략의 역사적 고찰,” 『전략연구』 제11호(1997), 6.
 - 3) 류계승, 『6·25,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북한, 소련, 중국의 전쟁 기획과 수행』(서울: 책세상, 2013); 장성진, “북한군 군사교리의 형성과 운용에 관한 연구, 1945~1950”(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참조.
 - 4) 당시 소련군의 군사교리는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발전된 투하츠헤스키의 『야전 규정』에 입각하였는데, 이는 가장 ‘신진’적인 ‘군사과학’이었다. 남일, “〈군사지식〉편집부 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군사지식』 제3호(1951), 5. RG242 204190.
 - 5) 예를 들어, 모든 장교들의 교육 자료로 스탈린의 저작물인 『소련의 위대한 조국

특히, 전쟁 직전인 1950년 5월, 『군사지식』 제4호 잡지에서는 스탈린의 항구적 작전요소 5원칙 중에서 전쟁에서의 도덕적 요인인 ① 후방의 공고화, ② 군대의 도덕적 정신을 강조하였다.⁶⁾ 인천상륙작전과 중국군의 참전 이후, 전쟁이 장기 소모전 양상으로 진행되는 1951년 6월 『군사지식』 제3호 잡지에서는 소련의 군사과학과 군사예술을 정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항구적 작전요소 원칙이 새롭게 부각되었다. 이후 전쟁이 종결되어 가는 1952년 12월 고급군관회의에서 진술한 김일성의 직접적인 연설을 통해 항구적 작전요소 5원칙이 재등장하였다.⁷⁾ 이렇듯 북한 문헌에 의하면, 스탈린의 항구적 작전요소는 북한군의 군사전략과 전쟁수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스탈린의 항구적 작전요소 5원칙과 관련하여 가토프(Raymond Garthoff), 글랜츠(David M. Glantz), 로버츠(Geoffrey Roberts) 등은 소련의 전략사상 변화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⁸⁾ 국내에서는 항구적 작전

전쟁에 대하여》에 대한 강의와 세미나가 이루어졌다. 고급군관, 상급군관, 하급군관에게 1949년 노동당출판사에서 출판된, 스탈린, 『쏘베트동맹의 위대한 조국전쟁에 대하여』를 참고서적으로 학습하였다. RG242 SA2013, Box2, Item55 참조.

- 6) 군사잡지부, “전쟁에서의 도덕적 요인의 역할에 대한 말쓰-레닌주의 학설,” 『군사지식』 제4호(1950년 5월), RG242 SA2010, Box3, Item2, 71-75.
- 7) 김일성, “인민군대를 강화하자(1952년 12월 24일),” 『근로자』 제1호(1953), RG242 SA 2018, Box2, Item34.2 당시 작성된 『근로자』와 『김일성전집』의 서술 내용의 차이가 식별된다.
- 8) 레이먼드 가토프(Raymond Garthoff), “자료: 소련이 보는 현대전의 결정적 제요소,” 배종호 옮김, 『국방연구』 제6호(1959), 125-145; 데이비드 M. 글랜츠·조너선 M. 하우스, 『독소전쟁사, 1941-1945』, 권도승·남창우·윤시원 옮김(서울: 열린책들, 2007); 제프리 로버츠(Geoffrey Roberts), 『스탈린의 전쟁』, 김남섭 옮김(서울: 열린책들, 2022). 가토프, “자료: 소련이 보는 현대전의 결정적 제요소”에서는 ‘항구적 영향요소(the permanently-operating factors)’라고 불리다가 스탈린

요소 5원칙의 중요성과 전략사상과 군사교리에 미친 영향에 대해 인식하면서도 북한군의 전쟁수행에 미친 종합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⁹⁾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군사적인 시각에서 북한 문헌을 중심으로 북한에서 이를 어떻게 수용하였는지 미시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스탈린이 제시한 항구적 작전요소를 북한이 어떻게 한국전쟁을 통해 변용하였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북한군의 전쟁 준비 및 수행과정에서 스탈린의 전략사상인 항구적 작전요소 5원칙을 어떻게 수용하였는지를 분석하고, 북한군의 전쟁수행에 미친 영향력을 이해하고자 한다.

머리말에 이어 2장에서는 스탈린의 항구적 작전요소에 대한 주요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북한군 전쟁수행에 적용된 5가지 원칙의 내용을 분석하겠다. 마지막으로 내용을 요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가능한 북한 문헌과 1차 사료를 중심으로 분석하되, 소련과 스탈린의 사상에 대해서는 2차 문헌을 참고하였다.

사후에는 ‘결정적’ 혹은 ‘기본적’요소라는 용어로 변경되었다. 제프리 로버츠, 『스탈린의 전쟁』에서는 “영구적 작동 요인들”로 번역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항구적 작전요소’로 명칭을 통일하였다.

- 9) 유용원·신범철·김진아, 『북한군 시크릿 리포트』(서울: 플래닛미디어, 2013)에서는 ‘전쟁운용의 지배요소’로 소련의 영향력을 제시하였고, 류계승, 『6·25,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에서는 ‘지속영향요인’으로 북한군 작전술과 전쟁수행에 미친 영향을 언급하였다. 장성진, “북한군 군사교리의 형성과 운용에 관한 연구, 1945-1950”에서는 항구적 작전요소가 북한군 군사교리에 미친 영향을 다루었다. 하지만, 한국전쟁 기간에 스탈린의 항구적 작전요소 5원칙이 어떻게 북한군 전쟁수행에 적용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용어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본 논문에서는 ‘항구적 작전요소’로 명칭을 통일하였다.

2. 스탈린의 항구적 작전요소 5원칙

독·소 전쟁 기간 중 스탈린은 1942년 2월 23일, 전쟁의 승리를 위해 항구적 작전요소 5원칙에 대한 명령 55호를 하달하였다.¹⁰⁾ 5개 요소는 ① 후방의 안정, ② 군의 사기, ③ 사단의 양과 질, ④ 군의 무장, ⑤ 지휘관의 조직 능력이다. 이는 독일과의 전쟁에서 초기 전투 독일군의 기습을 일시적 요소로 배제하고 국가의 총력전 수행을 강조하는 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

항구적 작전요소는 스탈린만의 창조품은 아니었다. 과거 스베친 등의 소련 군사과학 연구자에 의해 군사적으로 정리되었던 내용을 스탈린이 결정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의미가 있다.¹¹⁾ 또한, 이 명제는 소련 군사교리를 표현하는 것으로 1956년까지 사용되었지만, 스탈린 사후에는 이에 대한 비평이 이루어진다.

1) 후방의 안정(the stability of the rear)

(1) 스베친의 주장과 스탈린의 수용

스베친은 “지금의 전쟁에서 승리가 고도로 훈련된 후방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며 후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¹²⁾ 즉, 예민한 지진계처럼 오늘날 군대는 후방의 작은 경제, 사회, 정치적 움직임에 반응해야 하며, 후방의 기강 유지의 국가지도층과 관련 기관의 책무이다. 이에 전

10) 가토프, “자료: 소련이 보는 현대전의 결정적 제요소,” 126.

11) 가토프, “자료: 소련이 보는 현대전의 결정적 제요소,” 126.

12) 알렉산드르 스베친(Aleksandr Svechin), 『스베친의 전략론 그리고 작전술』, 전갑기 옮김(서울: 선인, 2018), 75.

쟁에 대한 군사계획 수립 시 경제 동원, 군수 산업의 생산량, 수송 수단과 동원 준비 등이 중요하다.¹³⁾

실제로 스탈린그라드와 쿠르스크 전투의 승리 요인도 스탈린의 리더십, 장군들의 통솔 능력, 독일군의 실수, 애국적 동원, 영웅적 행동, 가혹한 규율, 적지 않은 행운 등이 있지만, 모든 요인의 효과를 압도한 것은 엄청난 경제적, 조직적 성취였다.¹⁴⁾ 이렇듯 전쟁 수행에 있어서 동맹국의 지원을 포함한 정신적, 경제적 기반은 중요하였다.

(2) 1952년 김일성의 고급군관회의 연설과 ‘공고한 후방’ 강조

1952년 김일성의 고급군관회의 연설에서 가장 강조되는 항구적 작전요소는 ‘공고한 후방’이다. 북한 문헌에 의하면, “전쟁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있어 항구적으로 작용하는 요인들 가운데서 첫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국가의 군사적 위력과 무장력의 전투적 기능의 기초가 되는 공고한 후방”이며, “공고하지 못하며 더욱이 적대적 관계를 가지는 후방은 가장 우수하고 가장 단결된 군대라 할지라도 그를 건전치 못하고 썩어 빠진 대중으로 전변시키고 만다”라는 스탈린의 연설을 그대로 언급하였다. “소련, 중국 등 국가들과 친선관계”도 후방 공고화에 기여함을 언급하였다.¹⁵⁾ 이렇듯, 후방 공고화는 자립경제의 측면도 있지만, 국제적인 지원도 고려되었다.

13) 스페친, 『스페친의 전략론 그리고 작전술』, 83. 이에 비축창고와 동원에비군 의 준비와 설비를 하는 데 있어서 군사비를 할당해야 함을 강조하였는데, 제정 러시아 시대에는 군사비의 37%가 할당되었다.

14) 로버츠, 『스탈린의 전쟁』, 283.

15) 『근로자』 제1호(1953), 14; 『김일성전집 15』, 314-315. ‘공고한 후방’이란 용어도 『조선전사 27』과 『김일성전집』에서는 ‘후방의 공고성’으로 변화된다.

『조국해방전쟁사』에 의하면, 후방 공고화는 김일성의 독자적인 방침이다.¹⁶⁾ 이를 인용하면, “전쟁수행에서 후방의 공고성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군사사상은 현대전쟁의 특성과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현대전쟁은 전선과 후방이 따로 없는 입체전이며 총력전이다. (중략) 현대전의 이러한 특성과 요구는 후방의 공고성에 대한 전쟁의 의존성과 전쟁수행에서 공고한 후방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비상히 증대시킨다. (중략) (후방공고화방침은) 전쟁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가장 정당한 방침이다.

(3) 스탈린 사후 항구적 작전요소의 변화

1953년 9월 소련의 군사학자 탈레스키(N. Talensky) 소장이 ‘항구적 작전요소 그 자체는 군사과학의 법칙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¹⁷⁾ 스탈린이 항구적 작전요소로 전쟁의 원칙을 제시하였고 경제 및 사기의 중요성을 강조한 의미가 있었지만,¹⁸⁾ 현대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16) 『조국해방전쟁사 1』, 4절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후방공고화방침 제시, 나라의 모든 사업을 전시체제로 개편” 부분을 참조, 특히 125 참조.

17) 그는 “항구적 영향요소가 가진 군사학원칙에 있어서의 그 중요성을 약화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대전에 있어서의 승리는 전쟁의 운명을 결정하는 항구적 영향요소의 우세에 입각해서 무력투쟁의 과정에서 적을 결정적으로 격파함으로써 성취할 수 있다”라고 하여 이론이 아닌 실행을 중시하였다. 가토프, “자료: 소련이 보는 현대전의 결정적 제요소,” 127.

18) 1954년 푸хов스키(Pukhovsky) 장군은 1954년에 “소련 군사과학만이 항구적 영향요소에 관한 명제와 더불어 그러한 경제 및 사기 문제를 깊은 과학적인 기초에서 보는 것이다”라고 하였고, 1955년에는 “소련 군사과학만이 전쟁의 운명을 결정하는 항구적 영향요소에 관한 문제를 법칙화하며 또 과학적으로 그러한 제요소를 공식화하였다”라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였다. 가토프, “자료: 소련이 보는 현대전의 결정적 제요소,” 128.

성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행하는 기타 요소(기습, 동원, 전투 경험, 준비태세, 유리한 전략적 위치, 과학기술 등)를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도 이루어졌다.¹⁹⁾ ‘항구적’이라는 용어에서 ‘결정적’ 요소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후방의 사기, 경제적 기초, 군의 사기 등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²⁰⁾ 이는 스탈린보다는 레닌에게 그 공을 돌리는 레닌 숭배의 새로운 형식이었다.²¹⁾

스탈린 사후의 비판과 비난에도 ‘후방의 안정’에 대한 중요성은 유지되었다. 현대전은 경제 전쟁이며,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자본주의국가보다 훨씬 우위에 있다는 이론적 논리를 제공하기도 하였다.²²⁾ 또한, 전략기획에 있어서 경제적인 측면의 중요성이 커졌다. 적절한 경제적 기초 위에서 있지 않은 전략은 필연적으로 실패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후방의 안정’은 군사공업 및 후송 등을 포함한 경제적 측면의 중요성으로 맥락을 이어갔다.

19) 가토프, “자료: 소련이 보는 현대전의 결정적 제요소,” 129-130, 137.

20) 가토프, “자료: 소련이 보는 현대전의 결정적 제요소,” 135-136.

21) 예를 들어, 주코프(G. Zhukov) 원수는 사단의 질과 양을 ‘과학기술의 수준과 상태’로, 지휘관의 조직 능력을 ‘병력의 전투 능력과 전통, 고급지휘부의 기량, 지휘관, 작전·전술급에 있는 장교요원’으로, 후방의 안정과 군의 사기를 ‘정부가 전쟁의 정의적 목표를 그들 인민과 군이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22) 레바노프(Levanov) 대좌는 『전쟁과 군에 관한 막스-레닌주의』에서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그 나라의 경제 및 사기면의 잠재력과 전쟁에서의 승리를 성취하기 위한 그러한 잠재력의 이용 등에 관해서 모든 자본주의국가보다 훨씬 큰 우위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였다. 가토프, “자료: 소련이 보는 현대전의 결정적 제요소,” 132.

2) 군의 사기(the morale of the army)

(1) 스페친의 국내정치와 스탈린의 정치

스페친은 전쟁에서 국내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²³⁾ 그는 국민의 의지와 여론을 중요시하였는데, 이는 군의 ‘도덕적 풍모’를 강조한 부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적의 선전선동에 대한 대응과 아주 폭넓은 정치 교화 사업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²⁴⁾ 그리고, 국내정치는 전쟁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국력을 더욱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전쟁에서 대중을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고 투쟁의지를 불러일으켜야 한다.²⁵⁾ 이에 전쟁의 명분과 승리의 근거를 주장하는 지도자의 연설문은 국론을 결집하고 전쟁을 수행하는 기본 지침이 된다. 스탈린은 전쟁 발발 시 이를 민족을 방어하는 애국전쟁의 성격으로 규정하였고, 이러한 관점에서 소련 특히 러시아 국민을 동원할 수 있었다.²⁶⁾ 이렇듯 민족감정과 애국적 충성심에 의지하는 스탈린의 능력은 결정적이었다. 또한, 철의 규율과 가혹한 처벌에 의한 스탈린의 명령은 전쟁 초기부터 스탈린의 또 다른 원칙이었다.²⁷⁾

23) 스페친, 『스페친의 전략론 그리고 작전술』, 72.

24) 스페친, 『스페친의 전략론 그리고 작전술』, 73.

25) 스페친, 『스페친의 전략론 그리고 작전술』, 126.

26) 로버츠, 『스탈린의 전쟁』, 64-65.

27) 로버츠, 『스탈린의 전쟁』, 238. 명령 227호 하달(1942년 7월 28일)하여 독전대를 배치하고 형벌 대대와 형벌 중대 등을 배치하였으며 “한걸음도 물러서지 말 것”을 명령하였다.

(2) 1952년 김일성의 고급군관회의 연설과 군대의 도덕적 품성

1952년 고급군관회의 연설에서 김일성은 군대의 도덕적 품성을 강조했는데, 북한 문헌에서는 “인민군대의 도덕적 품성의 의의는 우리 군대의 기초로 되는 노동 대중의 정치적 각성의 전반적 강성과 불가분의 연계를 지닌다”라고 하였다.²⁸⁾ 즉, “전쟁의 정의적 성격, 전쟁 목적에 대한 장병의 인식, 전쟁 목적과 인민의 이익과 연계성” 등에 대한 당 정치 사업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동시에 군사·정치 간부들의 교양적 역할과 당원들의 희생적 모범으로 적개심과 증오심을 고양토록 강조하고 있다. 도덕적 품성은 “세계평화 옹호투쟁에서도 원천을 얻고” 있다고 하였다. 이렇듯, 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인민에 대한 정치사상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하였고, 전쟁의 목적과 명분을 중요시하면서 국제적 지원도 강조하였다.

(3) 사기의 중요성

스탈린 사후에도 후방의 안정도 중요하지만, 항구적 작전요소에서 “사기는 두 번째 가는 중요요소”로 그 중요성이 유지되었다. 소련은 사기에 대해 “최대 예비력, 최대의 힘의 원천, 최대의 내구력, 민중의 확고 부동성 등을 가진 자가 전쟁에 승리”한다며 그 중요성을 평가하였다.²⁹⁾ 탈레스키 소장도 “진보된 사회 및 정치구조를 가지고 정의의 전쟁을 행하는 국가의 부대 사기는 반동적인 제도를 가지고 부정의 그리

28) 『근로자』 제1호(1953), 16; 『김일성전집 15』, 315.

29) 시도로프(P. Sidorov) 대좌는 “사기면의 잠재력과 현대전에서의 그 의의”라는 논문에서 이를 주장하였으며, 현대전에서 승리에는 “경제, 사기, 군사 등 제 요소에서 적보다 우세함이 필요하다”라고 하였다. 가토프, “자료: 소련이 보는 현대전의 결정적 제요소,” 133.

고 침략적인 전쟁을 행하는 국가의 부대 사기보다 항상 높을 것”을 강조하였다.

3) 군사적 3요소: 사단의 양과 질, 무장, 지휘관의 지휘·조직 능력

(1) 사단의 양과 질(the quantity and quality of divisions)

스베친은 군의 양과 질과 관련하여 “대규모 병력의 군대, 아주 훌륭한 군대는 존재하지 않는가?”라며 의문을 제기하였다.³⁰⁾ 그는 질이나 양을 과도하게 희생해서는 안 됨을 강조하였다. 양 중심으로 전투력을 특정한 수준 이하로 낮추면 안 되며, 질을 선호하여 충분하지 못한 병력으로 전쟁을 시작하는 심대한 실수도 우려하였다.³¹⁾ 제1차 세계대전 기간 독일군은 대대들을 다양한 모양으로 편조하였는데, 프랑스와 옛 소련군은 이러한 즉흥적인 편성에 성공하지 못했다.³²⁾ 이에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소총사단은 소련군의 가장 기본적인 전투부대였다.³³⁾ 이에 스탈린은 ‘사단의 질과 양’을 강조하였다.

1952년 고급군관회의에서 김일성은 “사단의 량과 질은 무장력 강화의 기본이며, 전체 군대의 량과 질”과 같다고 하였다. “기본적 병종을 가지고 있는 사단이 자립적으로 전술적 과업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전술적 기본연합부대”가 된다. 이는 소련의 기본 전술 편제의 특징과

30) 스베친, 『스베친의 전략론 그리고 작전술』, 178.

31) 스베친, 『스베친의 전략론 그리고 작전술』, 180-182. 결론적으로 전쟁으로 양적으로 충분하면서도 질적으로 우수한 부대를 요구하였다.

32) 타무라 나오야(田村直也), 『제2차 세계대전 직전 각 국가들의 육군교범을 읽다: 독일, 프랑스, 소련, 일본 전술교범 비교』, 장형익 옮김(서울: 황금알, 2021), 193.

33) 데이비드 글렌즈, 『8월의 폭풍』, 유승현 옮김(과천: 길찾기, 2018), 60.

동일하다. 또한, “사단의 질은 군대의 과학적 조직과 전투위력, 무기의 구성과 질, 전투적 훈련”에 의해 나타난다.³⁴⁾ 스탈린은 사단의 수보다 완전한 편성을 더 강조하였다면, 김일성은 완전한 편성보다 빠른 부대의 확장과 사단의 수를 우선하였다는 차이점이 있다.

스탈린 사후, 사단의 양과 질의 요소는 넓은 의미로 해석되어 왔다. 또한, 군사력의 측면에서 하나의 필수적 요소는 ‘인적 자원’이다. 병력의 수는 전쟁의 초기 단계뿐만 아니라 전 과정을 판단해야 한다. 이에 예비부대의 병력 수준도 중요하며, 전략적 예비력을 보유하고 적절히 운용하는 것도 중요 요소이다.³⁵⁾ 병력의 수에 대한 강조와 중요성은 ‘대규모의 집단지상군주의’라는 소련군 사상을 유지하게 되었다.³⁶⁾ 이러한 대군 지상군주의는 북한군에도 영향을 주었다.

(2) 군의 무장(the armament of the army)

스베친은 미래의 전쟁에서 과학기술의 주도권은 대단히 중요하며 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과학기술은 전쟁 상황에 적용하여야 하고, 기술의 탄력성은 동원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³⁷⁾ 새로운 무기는 바로 육중하게 그리고 대량으로 등장해야 하며, 전투에서 검증하지 않고는 대량 생산을 하지 않는다는 믿음도 필요하다.³⁸⁾ 또한, 현대전에서

34) 『근로자』 제1호(1953), 16; 『김일성전집 15』, 316; 『김일성저작집 7』, 461.

35) 가토프, “자료: 소련이 보는 현대전의 결정적 제요소,” 143.

36) 주코프는 대규모지상군의 역할에 관한 소련의 견해를 발표(1956년과 1957년) 하였는데, 공군 및 핵무기가 현대전쟁에서 지배적인 형태임을 부정하고, 전면 핵전쟁에서도 집단지상군은 필요하다고 하였다. 가토프, “자료: 소련이 보는 현대전의 결정적 제요소,” 144.

37) 스베친, 『스베친의 전략론 그리고 작전술』, 104.

38) 스베친, 『스베친의 전략론 그리고 작전술』, 105.

군사 장비와 기계화 장비의 작동 과정에서 사기가 축적된다.³⁹⁾ 이렇듯 무기와 장비는 물질적 군사력임과 동시에 정신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준다.

1952년 김일성은 고급군관회의에서 “무장한 군대의 무장투쟁은 군사예술평전의 가능성을 규정하는 결정적 조건의 하나”라고 하였다.⁴⁰⁾ 새로운 군사기술로서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단히 자라나고 있다면서, “전쟁기간에 인민군대는 양적으로 3배나 늘어났고, 1952년에 와서 매 보병사단의 화력은 그 전해에 비하여 160%로, 1분 동안에 쓸 수 있는 탄환은 140%로 각각 늘어났음”을 언급하였다. “군사예술평에서의 본질적 변화는 사회정치적조건의 변천과 새로운 투쟁수단의 출현으로써 이루어지며 군사예술평이 군사기술을 통하여 생산에 의존하고 있다”라며 새로운 투쟁수단과 대량 생산의 중요성을 함께 강조하였다. 이렇듯, 사단의 질과 양, 그리고 군대의 무장은 모두 소련의 새로운 군사기술로서 북한군에 대한 군사력 강화가 이루어졌다.

스탈린 사후, 탈렌스키는 ‘군의 무장’은 “무장분쟁의 수단과 형태를 발전케 하는데 결정적인 요소의 하나”라며 중요성을 인정하였다.⁴¹⁾ 또한, 군의 무장은 경제력과도 연계되는데, 현대군은 대량 생산 없이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소련은 “생산의 동원과 전개 특히 중공업에 있어서의 결정적인 역할”을 강조하였다.⁴²⁾ 이렇듯 첨단기술의 적시적인 적용도 중요하였지만, 대량생산도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39) 스페친, 『스페친의 전략론 그리고 작전술』, 177.

40) 『근로자』 제1호(1953), 17; 『김일성전집 15』, 317.

41) 가토프, “자료: 소련이 보는 현대전의 결정적 제요소,” 134.

42) 가토프, “자료: 소련이 보는 현대전의 결정적 제요소,” 143.

(3) 지휘관의 조직 능력(the organizing ability of the command personnel)

스베친에 의하면, 간부들의 질적 수준, 부대의 기강, 조치의 체계성, 성공적인 군사행동, 명령의 명료한 함목적성이 지휘관의 권위를 높이고, 군의 사기를 유지하고 높일 수 있다.⁴³⁾ 전쟁 시 군의 지휘와 동원은 상설 전산망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지휘통신이 중요하다.⁴⁴⁾ 이렇듯, 지휘관과 참모, 지휘체제를 중요시하였다. 군에 있어서 군의 구조와 편성은 상당히 중요한데,⁴⁵⁾ 한국전쟁 기간에도 스탈린은 군의 조직 및 편성을 강조하였다.⁴⁶⁾

1952년 고급군관회의 연설에서 김일성은 “군대에서 지휘관의 역할은 특히 거대”하며, “지휘관의 질적 가치는 전체 군대의 질을 결정함에 중요한 조건”이라고 하였다. 이에 “군대 지휘관 양성 문제에 커다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이로 인해 1952년에 약 45%의 지휘관이 군사강습소 및 기타 교육기관의 교육을 받았다.⁴⁷⁾ 실제로,

43) 스베친, 『스베친의 전략론 그리고 작전술』, 176-177.

44) 스베친, 『스베친의 전략론 그리고 작전술』, 167.

45) 그랜츠는 소련군의 지휘체제가 독소 전쟁 초기 실전경험을 통해 중심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군으로 재탄생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David M. Glantz, *Colossus Reborn: The red army at war, 1941-1943*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05) 참조.

46) 7월에는 현 전선 부대에 병력 충원 전담부대를 설치하여 증원하도록 하였고, 1951년 1월에는 사단의 질과 양을 고려하여 5개 군단에 23개 이내 사단을 편성토록 강조하였다. 김일성은 북한군의 재편성 과정 중에서 최대한 많은 수의 사단을 보유하려고 집착하려는 것을 스탈린이 강하게 비판했다. A. V. 토르쿠노프(A. V. Torkunov), 『한국전쟁의 진실과 수수께끼』, 구종서 옮김 (서울: 에디터, 2003), 237; 류제승, 『6·25,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229.

47) 『근로자』 제1호(1953), 17; 『김일성전집 15』, 317-318. ‘지휘관들의 조직적 기능’이라는 용어는 『조선전사 27』, 『김일성전집』에서는 ‘지휘관들의 조직자적 능력’이라는 용어로 변화된다.

〈표 1〉 스탈린의 항구적 작전요소의 시대적 변화

스탈린(1942년)	김일성 연설(1952년)	스탈린 사후
후방의 안정	공고한 후방	경제적 잠재력
군대의 도덕적 품성	군대의 도덕적 품성	사기적 잠재력
사단의 양과 질	사단의 양과 질	군사적 잠재력
군대의 무장	군대의 무장	
지휘관의 조직 능력	지휘관의 조직자적 기능	

북한군의 창설시기부터 전쟁수행에 이르기까지 소련 군사고문단의 기본사업 중 하나는 부대편성과 지휘체계의 확립이었다.⁴⁸⁾

스탈린 사후, 사단의 양과 질, 군의 장비, 지휘관의 조직 능력(장교단의 능력)은 ‘군사적 잠재력’을 형성하는 의미로 조정되었다. 군사적 잠재력이란 “군사적 인적 자원과 무기의 양과 질, 전개 그리고 예비력 등을 망라”한다.⁴⁹⁾ 군사적 잠재력에는 ‘육·해·공군의 기간조직’과 ‘훈련된 예비군’ 두 가지 요소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기간조직이란 전투준비완료 사단(상비사단) 이외에 예비 병력을 동원하는 기간 편성된 조직을 의미한다. 장교의 훈련과 준비에 각별한 중점을 두고 제 요소를 검토하거나, 군사과학기술의 수준에 대하여 관심을 두기도 하였다.⁵⁰⁾

48) 소련 군사고문단은 북한군의 훈련, 현대식 소련 군사장비 편제, 전략적·작전적 전쟁계획 및 수행분야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였으며, 중요 인사문제에도 개입하였다. 군사고문단의 결정적 역할에 대해서는 류제승, 『6·25,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125-134.

49) 가토프, “자료: 소련이 보는 현대전의 결정적 계요소,” 142.

50) 페트로프(Petrov) 대좌의 “군사적 잠재력의 본질에 관하여”라는 논문(1958년 중기)에 잘 나타나 있다. 가토프, “자료: 소련이 보는 현대전의 결정적 계요소,” 142.

3. 북한군의 항구적 작전요소의 수용과 특징

1) 전쟁 준비와 결정 과정

스탈린은 한국전쟁 이전에 성격이 다른 두 개의 전쟁을 지도하였다. 하나는 독일과의 장기 소모전이었고, 다른 하나는 일본과의 단기 섬멸전이었다. 공세 지향적이었던 소련은 만주에서 보안을 유지한 가운데 선제 기습 속전속결에 의한 ‘폭풍작전’이 성공하여 승리하였다.⁵¹⁾ 스탈린은 최초에는 한국전쟁을 반대하였으나, 1950년 국제정세의 변화로 한반도에서 단기 섬멸전을 위한 제2의 ‘폭풍작전’을 승인하였다. 동시에 장기전과 미국의 참전 가능성을 우려하여 중국의 참전에 의한 장기 소모전도 고려하였다. 이에 항구적 작전요소 중 후방의 안정 등의 내용은 선택적으로 적용하였다. 반면, 김일성은 단기 섬멸전에 의한 ‘국토완정’을 꿈꾸었다.

(1) 항구적 작전요소에 대한 간부 교육

북한은 1948년 4월에 제2차 세계대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립된 『야전규정』(1944년도판)을 번역, 발간하였다. 이 교범은 북한군의 군사 과학과 전투훈련의 토대가 되었다. 아울러, 1949년도에는 스탈린의 『소련의 위대한 조국전쟁에 대하여』를 번역, 출판하였는데, 이는 모든 장교(군관) 정치훈련의 기본 훈련 내용이었다. 당시 서적에는 소련 국방위원장의 명령 제55호(항구적 작전요소 5원칙)가 포함되어 있었다.⁵²⁾

51) 이에 대한 내용은 글렌즈, 『8월의 폭풍』을 참조.

52) 스탈린의 명령(55호)은 고급군관으로부터 상급, 하급군관에게 이르기까지 모두 중요한 정치훈련 과정이었다. 고급군관들을 위한 “레닌·스탈린 저작에 의

당시 북한 문헌에는 “(독일군은) 붉은 군대의 역량을 측량치 못하였고, 소련 후방의 견고성을 측량치 못하였으며, 승리를 전취하려는 우리나라 인민들의 뜻을 측량치 못하였고,” 또한, “전쟁 행정 중에서 붉은 군대가 새 생활력을 섭취하였고, 사람과 기술로 보충되었으며, 새 후비사단 등을 방조 받았다”, 이는 “돌연성 인소와 같은 그런 우연한 인소로 결정될 것이 아니라 항상 작용하는 동인 즉, 총후의 견고, 군대의 도덕성 기재, 사단의 수효와 바탕, 군대의 무장, 군대 지휘관 성원의 조직자적 수완으로 결정될 것”임을 강조하였다.⁵³⁾ 즉, 독·소 전역에서 우연의 요소가 아니라 항구적으로 소련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요인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가장 먼저 후방의 공고함과 군대의 도덕성을 최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이후 사단의 양과 질, 군의 무장, 지휘조직 순으로 언급하였다.

(2) 전쟁 결정과 항구적 작전요소의 변용

스탈린은 독·소 전역에서 장기적인 소모전과 전 인민적인 총력전을 수행하기 위해 5가지 요소를 강조하였고, 가장 중요한 전승의 요인은 ‘후방의 공고함’이었다. 하지만, 한국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장기

한 소련 공산당 력사 연구제강”의 참고문헌은 스탈린, 『소련의 위대한 조국전쟁에 대하여』로 되어 있으며, 상급군관에게 “소베트연맹의 위대한 조국전쟁 시기에 있어서의 불세유키 당”에 대한 강의 12시간, 세미나 4시간이 계획되어 있고, 하급군관에게 “위대한 조국전쟁 시기에 불세유키당의 사업경험”은 강의 26시간, 세미나 8시간으로 참고문헌은 1949년 로동당출판사의 스탈린, 『소베트동맹의 위대한 조국전쟁에 대하여』를 참고하도록 되어 있다. RG242 SA2013 Box2 Item55 참조.

53) “국방위원장의 명령 제55호,” 이:스탈린, 『소련의 위대한 조국전쟁에 대하여』(북조선로동당출판사, 1949), RG242 SA2018, Box8, Item133, 49-51.

적인 측면보다는 공세적인 단기 섬멸전을 수행하기 위한 군사적, 정치적, 국제정치적 측면을 고려하였기에 5가지 요소의 전체적인 적용이 아닌 부분적인 내용으로 적용하였다.

1949년 9월까지 북한의 무력통일론에 대한 스탈린은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였다. 스탈린은 북한의 전쟁 요청에 대해 6가지 요소를 확인토록 하였다.⁵⁴⁾ 군사적 측면에서 충분한 공격 준비가 되어 있는지와 정치적 측면에서 전 인민의 봉기 여부, 미군의 개입 가능성 등을 주로 확인하였다. 군사적 측면에서 사단의 질과 양, 무기 수준 등의 전투력 현황을 비교 분석하였고, 도덕성 특성을 고려 여론과 인민의 태도 등을 분석하였다. 가장 중요한 미군의 증원 가능성은 북한이 장기전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에 1949년까지는 반대하였다. 하지만, 국제정세의 변화로 스탈린은 이를 승인하는 대신 전제 조건으로 유사시 중국의 참전을 포함하였다.

(3) 항구적 작전요소에 의한 군사력 강화와 한계

전쟁 수행을 위한 북한의 군사력 강화는 1949년 3월 5일 김일성과 스탈린의 모스크바 회담 계기로 급진전되었다. 소총, 전차, 야포 등 지상 장비와 함정, 항공기, 탄약, 무전기 등 110여 종의 현대적 무기를 소련으로부터 지원받았다.⁵⁵⁾ 소련 측은 1949년 말까지 소총 15,000정,

54) ① 국군의 병사 수, 무기, 전투 능력, ② 빨치산의 활동 현황, ③ 여론과 인민의 태도, ④ 미군(증원 가능성), ⑤ 북한의 군사력, 군대 현황, 무기 수준, 전투 능력, ⑥ 정세 분석 등이다. 와다 하루키, 『와다 하루키의 한국전쟁 전사』, 남상구·조운수 옮김(파주: 청아출판사, 2023), 103-104.

55) 박찬만, “주북한 소비에트 연방 군사고문단의 역할과 기능(1948-1953)”(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125; 신범식, “소련의 북한 군사지원,”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1』(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각종 포 139문, T-34전차 87대, 항공기 94대 등을 인도하였다. 동시에 1949년 초부터 전국적으로 총동원령을 발동하여 군 병력 충원제도를 '지원제'에서 '모병제'로 바꾸었다.⁵⁶⁾ 1950년 4-5월에는 T-34전차, SU-76자주포, 박격포, 공병 장비 등이 추가 도입하였고, 중국군 내 한인 병력이 추가 입북(이후 12사단으로 편성)하였다. 이렇듯 1950년 6월, 북한군은 국군에 비해 병력, 장비 면에서 공격 역량을 구비하게 되었다.⁵⁷⁾ 즉, 항구적 작전요소의 4번째인 '군의 무장'을 갖추었다.

제2차 세계대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북한군 사단은⁵⁸⁾ 엘리트 부대로 성장하였고, 사단의 질과 양에 있어서 한국군보다 약 1.5배 이상의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빨치산의 활동은 모스크바와 박헌영의 기대에 부응할 만한 역량을 구비하지 못하였다.⁵⁹⁾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총력전에 의한 승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준비되지 못했다. 단기 섬멸전을 위한 군사력 강화는 이루어졌지만, 북한군은 소련군과 달리 전략적·작전적 예비 부대와 후방 조직의 역량을 충분히 조직하지 못하였다.⁶⁰⁾ 물질적 경제적 토대는 미흡하였지만, 단기 섬멸전과 사상전으로 이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56) 박찬만, “주북한 소비에트 연방 군사고문단의 역할과 기능(1948-1953),” 128.
 57) 1단계인 1948년 후반부터 1949년 8월 사이 약 2배, 2단계인 1949년 후반부터 1950년 3월까지 약 50%가량 각각 북한군의 군사력이 증강되었다. 박찬만, “주북한 소비에트 연방 군사고문단의 역할과 기능(1948-1953),” 132.
 58) 소련군이 제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현대적 전면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사단을 모델로 북한군 보병사단을 조직하였다. 김선호, 『조선인민군: 북한 무력의 형성과 유일체제의 기원』(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20), 327.
 59) 와다 하루키, 『와다 하루키의 한국전쟁 전사』, 115.
 60) 류계승, 『6·25,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158.

(4) 항구적 작전요소의 도덕적 요인 강조

총력전 수행을 위해서는 경제적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는 전쟁 결정 이후 단기간 달성이 제한되었기에 항구적 작전요소 중 도덕적 요인을 강조하였다. 1950년 5월, 『군사지식』에서는 전쟁에서의 도덕적 요인의 역할에 대한 논문이 소개되었다.⁶¹⁾ 이에 스탈린의 1942년 2월 23일 역사적 명령을 소개하였다. 또한 “도덕적 요인은 모든 군사행동을 통관하면서 전쟁의 운명을 결정하는 제 요인 중의 하나”라며 군의 도덕적 정신을 강조하였다.⁶²⁾ 스탈린은 2차 세계대전(독·소 전역)은 “인민전쟁”이었기 때문에 독일의 전격전이 불가능하였고, 이를 통해 “후방의 상태와 그의 견고성과 강인성의 의의”가 있었고, “세계의 어떠한 군대라도 견고한 후방이 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논문에서는 ① 후방의 안정 중에서 인민들의 도덕적 품성과 사상, ② 군대의 도덕적 정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후방의 공고함은 도덕적 요소뿐만 아니라 경제적, 물질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음을 강조하지 않았다.

이렇듯, 전쟁의 결정 과정에서 항구적 작전요소 중에는 사단의 질과 양, 무기와 장비 등의 군사적 측면과 군의 사기와 도덕적 특성 등을 고려하였으나, 가장 결정적 요인은 후방의 공고화 중 생산, 동원, 보급, 수송 등 경제적인 측면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있었다.

61) 군사잡지부, “전쟁에서의 도덕적 요인의 역할에 대한 말스-레닌주의 학설,” 『군사지식』 제4호(1950), RG242 SA2010 Box3 Item2, 71-75.

62) 군대의 도덕적 정신은 “높은 자각성, 용감성, 영웅성, 과단성, 그리고 고상한 군사기술을 배합한 붉은 군대가 가장 높은 전투적 품질을 소유”하였다고 강조하였다. 군사잡지부, “전쟁에서의 도덕적 요인의 역할에 대한 말스-레닌주의 학설,” 72.

1948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북한군의 군사력 강화도 단기적인 성과가 있었겠지만, 1950년 “국제환경이 유리하게 변하고” 있어, 스탈린은 중국의 동의와 지원을 전제로 북한의 선제 남침 공격에 동의하였다. 특히, “(한국과 미국이) 체계적으로 저항하거나 국제사회의 지원을 동원할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이 전쟁은 기습적으로 수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⁶³⁾ 즉, 항구적 작전요소 중 후방의 공고화, 지휘 조직과 리더십은 잘 계획된 전쟁계획과 기습효과 달성에 의한 단기 섬멸전과 사상전으로 충분히 극복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2) 한국전쟁 초기 전투와 항구적 작전요소의 보완

(1) 전시체제 전환과 후방의 중요성

김일성은 전쟁 발발 초기부터 후방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6월 26일 연설을 통하여 ① 도피분자에 대한 숙청 사업, ② 공장, 노동자 등에 의한 전선 요구에 대한 보장, ③ 군대 식량 공급 및 원호사업 등의 “인민군대의 후방을 공고히 하는 일체 사업을 조직해야” 함을 강조하였다.⁶⁴⁾ 또한, 김일성은 북한군은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배양 훈련되었으며 최신식 현대적 정예무기로 장비되었으며 항상 조

63) 1950년 김일성과 스탈린 회담에 대한 요약기록의 내용은 류제승, 『6·25,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59-60 참조.

64) 김일성, 『자유와 독립을 위한 위대한 해방전쟁』(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1), RG242, SA2012 Box5 Item45, 9-10;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령도하신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사 1』(사회과학출판사, 1972), 110; “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1950년 6월 26일),” 『김일성전집 12』(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13-14. 1972년 이후 문헌에서는 “인민군대의 후방을 철옹성같이 다져야 하겠다”라며 의미가 강화되었다.

국과 인민을 위하여 싸워야 한다는 숭고한 각성을 가지고 있다”라며 ‘군의 무장’과 ‘도덕적 특성’도 강조하였다.⁶⁵⁾ 아울러, 군사위원회를 조직하여 인민군대의 초모사업, 후방 강화, 전시 동원 체계 확립 등을 하도록 하였고,⁶⁶⁾ 인민과 군인에 대한 정치선전사업 강화, 대외 선전 강화, 무기 보충 등으로 “나라의 전반 사업을 전시체제로 개편하고 전선과 후방을 통일적으로 장악하여 전국의 모든 역량을 전쟁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로 조직 동원”하도록 하였다.⁶⁷⁾ 이렇듯, 후방의 공고화 등을 포함하여 항구적 작전요소를 통해 총력전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전쟁 지도자로서 김일성은 총력전 수행을 위해 ‘후방의 공고화’를 강조하였다고 볼 수도 있지만, 북한 문헌에서는 항구적 요인을 적용하였음을 적시하고 있다.

『조선전사 25』에 의하면, 김일성이 “전쟁의 운명을 결정하는 항구적 요인, 즉 후방의 공고성, 군대의 도덕적 품성, 사단의 량과 질, 군대의 무장, 지휘관들의 조직자적능력 등을 전면적으로 분석하여” 6월 26일에 후방 공고화 관련 방송연설을 하였다고 언급되고 있다.⁶⁸⁾ 또한, 연설의 제목도 “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라고 하였지만, 당시 노획문서에서는 “전체 조선인민들에게 호소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 김일성장군의 방송연설”로 되어 있다.⁶⁹⁾ 아울러, 후방 공고

65) 김일성, 『자유와 독립을 위한 위대한 해방전쟁』, 8-9.

66) “모든 역량을 전쟁승리로 총동원할데 대하여(1950년 6월 26일),” 『김일성전집 12』, 17-19.

67) “군사위원회의 임무에 대하여(1950년 6월 26일),” 『김일성전집 12』, 24-28.

68) 『조선전사 25』(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93.

69) “전체 조선인민들에게 호소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 김일성 장군의 방송연설,” RG242, SA2005 Box2, Item23 참조. 어느 순간부터 연설의 제목은 “모든 힘은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로 강조되었다.

화의 핵심요소 중 하나인 동원령 선포는 미군의 참전과 연계하여 7월 1일에 비로소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볼 때 6월 26일에는 ‘반공격’이라는 전쟁의 명분을 확보하고, 전시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의 연설문이라고 볼 수 있다.

(2) 미군의 참전과 항구적 작전요소의 보완

미군의 참전 이후 전쟁 준비와 결정과정에서 부족하였던 후방의 공고화와 지휘관들의 조직자적 능력을 실질적으로 보완하였다. 1950년 7월 1일에는 전시동원이 선포되었고, 7월 8일에는 “미제국주의자들의 무력 침공을 단호히 물리치자”라는 방송연설을 하였다.⁷⁰⁾ 김일성은 “적들을 완전히 격멸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건”으로 ① 현대적 전투기술로 무장되어 있으며, ② 자원병 50여만 명과 빨치산에 의한 애국주의, ③ 인민들의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 ④ 전 세계 민주사회의 지지를 언급하였다. 특히, “우리의 후방을 어느 때보다 일층 더 강화하자”라고 강조하였다.⁷¹⁾ 즉, 자원병을 포함한 후방의 공고화, 사단의 질과 양, 현대적 전투 기술에 의한 군대의 무장 등의 항구적 작전요소에 의한 총력전 수행과 정규전, 비정규전에 의한 속전속결을 통해 전쟁을 종결하고자 하였다.

또한, 전후 발간된 『조선전사』, 『조국해방전쟁사』 등에 의하면, 전선과 후방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전쟁지휘체계를 정비하였다.⁷²⁾

70) 김일성, 『자유와 독립을 위한 위대한 해방전쟁』, 185.

71)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군사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일성 장군의 방송연설, 『군사지식』(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보위성 전투훈련국, 1950년 8월), 5-8, 208-258; 김일성, 『자유와 독립을 위한 위대한 해방전쟁』, 26-29. 1950-1951년 문헌에서는 후방을 강화하자고 하였으나, 1970년 후반 이후 문헌에서는 후방을 철옹성같이 강화하는 것으로 더욱 강조된다.

72) 『조선전사 25』, 161-163; 『조국해방전쟁사 1』, 191-193.

전선사령부를 조직하여 전선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군사 규율과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군사위원회 제도를 시행하며, 문화부의 정치사상교양사업 등으로 군의 전투력을 강화하였다. 하지만, 북한의 전쟁지휘체계 정비는 소련 군사고문단에 조언에 따라, 전방 작전은 전선 사령부에, 후방 업무는 민족보위상에, 최고사령관인 김일성이 전반적인 전쟁 지도를 하도록 지휘체계를 정비하고, 군단 조직 강화, 정치위원제도 시행 등으로 전쟁 결정 이전 부족하였던 지휘체계를 정비하였다.⁷³⁾ 이후에도 8월 15일 연설에서 “모든 것을 전선으로!”, “모든 것을 전쟁 승리를 위하여!”라는 구호하에 후방의 공고화, 군의 무장, 도덕적 품성 등을 지속 강조하였다.⁷⁴⁾

(3) 패인 분석과 항구적 작전요소의 관계

전쟁의 패인을 분석한 1950년 12월 별오리 회의는 북한군의 군사정책과 전략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⁷⁵⁾ 당시 6가지 장점과 8가지 결함을

73) 7월 3일 김일성은 군의 지휘체계 조언을 구하였고, 이에 시티코프와 바실리에프는 논의하여 이에 시티코프와 바실리에프의 논의한 결과, ① 2개 군단 조직, ② 참모부를 전선사로 개조, ③ 민족보위성은 보급, 훈련, 해안방위, ④ 최고사령관직에 김일성 취임, ⑤ 좌익 군단장 무정, 우익 군단장 김용, 전선사령관 김책, 참모장에게 강건, 민족보위상인 최용건은 유임으로 검토하였고, 이후 7월 4일 확정되어 7월 5일경 시행되었다. 와다 하루키, 『와다 하루키의 한국전쟁 전사』, 234-235; 박종효 편저, 『러시아 연방 외무성 대한정책자료』 제1권(서울: 선인, 2010), 404-405.

74) 김일성, 『자유와 독립을 위한 위대한 해방전쟁』, 68-71, 73. “모든것을 전선으로(1950년 8월 15일),” 『김일성전집 12』, 234-238.

75) “현정세와 당면과업(1950년 12월 21일),” 『김일성전집 12』, 451-454; 김광수, “조선인민군의 창설과 발전, 1945-1990,”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편, 『북한군사문제의 재조명』(서울: 한울엠플러스, 2006), 108; 박현옥, “한국전쟁시 북한

교훈으로 제시하였다.⁷⁶⁾ 특히, 8가지 결합으로 ① (전략) 예비부대, ② 조직 및 지휘 능력, ③ 부대의 규율, ④ 국군의 섬멸, ⑤ 특수조건하 전투(산악·야간전), ⑥ 유격전(빨치산), ⑦ 후방 조직, ⑧ 정치교양 사업 등이 미흡하였다. 이는 소련 군사고문단이 지적한 내용을 바탕으로 김일성이 종합했던 것으로 여겨진다.⁷⁷⁾

8가지 결합의 내용 중 작전술 분야인 국군의 섬멸, 특수조건하 전투, 유격전 외에는 대다수가 항구적 작전요소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음이 주목된다.⁷⁸⁾ 예비부대와 후방조직 사업은 첫 번째 요소인 후방의 공고함, 조직 및 지휘 능력은 5번째 요소인 지휘관의 조직자적 능력으로 전쟁 이전부터 각자 미흡했던 분야이다. 부대의 규율성과 정치교양 사업은 2번째 요소인 도덕적 품성에 해당된다. 전쟁 초기 성과가 있었으나, 철수시기 규율이 무너지는 상황을 통해 강조되었으며, 이는 물질적 토대 없는 정신력의 한계성을 보여주었다.

소련의 자료에도 북한군의 미흡한 작전 내용을 유사하게 분석하였다.⁷⁹⁾ 먼저, 예비대의 부족이다. “예비대의 부재와 제2제대의 소모로 북한군은 선택된 방향에 병력을 증강할 수 있는 능력을 잃었고, 공격

군의 전쟁지도,” 『전사』 제3호(2001), 237-239.

76) 6가지 장점으로는 ① 진정한 인민군대로 육성, ② 당의 역할, ③ 소련, 중국 등의 물질적, 정신적 원조, ④ 식민지 해방전쟁이었고, ⑤ 실전 전쟁 경험으로 군대가 단련되었으며, ⑥ 적국(유엔과 한국군)의 사기가 저하되었다.

77) 김광수, “조선인민군의 창설과 발전, 1945-1990,” 109.

78) 작전술은 1920년대 소련의 스페친에 의하여 그 개념이 등장하였다. 전쟁의 최종목표에 이르는 길은 일련의 작전으로 나누어지며, 전략과 전술의 가교 역할을 한다. 특히, 스탈린의 항구적 작전요소는 스페친이 강조하는 장기 소모전 수행에 유용한 작전원칙을 제공한다.

79) 소련 국방성, 『소련이 기술한 6·25전쟁』, 이은연 옮김(계룡: 육군군사연구소, 2020), 80-86.

은 둔화되었다.” 이렇듯, 전략 및 작전 예비대 부족으로 북한군의 공격 기세는 둔화되었고, 전투력도 약화되었다.

두 번째, 후방조직이다. “불충분한 장비로 인해 후방지역의 시설물 방호와 부대들의 대공방어는 미약하였다.” 또한, “후방 업무의 결함이 드러났다. 수송수단의 부족과 보급로에 대한 미 공군의 강력한 폭격으로 후방조직은 정기적인 부대 보급과 부상자를 후송하는 업무를 할 수 없었다.” 이렇듯 보급, 운송 등 후방조직의 미흡은 미 공군의 폭격과 연계하여 나타났다.

세 번째, 조직 및 지휘 능력이다. “부대의 재편성은 수송수단의 부족과 적의 공군력 그리고 지형적 조건으로 어려웠다. 이로 인해 적시적인 병력의 재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부대지휘에 필수적인 전시지휘통제 기구의 전개를 적시에 제공하지 못하였다.” 아울러 “총참모부는 여전히 지휘통제가 미약하였고 총사령부의 지휘통제기구로서의 완전한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다.” 이렇듯, 지휘통제를 위한 수단, 조직, 장비가 부족하였으며, 군단급 이상의 제대 지휘는 소련 군사 고문단에 의존하였다.

요컨대, 북한군은 항구적 작전요소의 도입으로 전차 등으로 무장한 정예사단 편성 및 준비, 높은 정신력과 사기 등으로 전쟁 초기에 낙동강 일대까지 진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북한군의 약점인 해·공군의 열세, 미 공군에 의한 병참선 차단, 전쟁 지속 능력 및 후방 동원력 미흡, 작전술 이상의 지휘체계 및 지휘·조직 능력 미흡 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패하였다.

3) 장기 소모전과 항구적 작전요소의 중요성

(1) 1951년 『군사지식』 편집부 사업 개선과 항구적 작전요소

1951년 4월 김일성은 최고사령부 총참모장에게 『군사지식』 편집부 사업을 개선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다.⁸⁰⁾ 당시 『군사지식』은 “군관(장교)들을 당의 사상과 선진적인 군사과학기술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의 지휘능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 모순되는 논문과 약도를 게재하거나, 정치교양 자료와 전투경험 자료를 게재하지 않는 등의 과오가 있었다. 이에 “당의 사상과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현대적인 군사과학 이론과 군사기술에 정통”하기 위해 개선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는 군사고문단이 북한군 전투력 강화를 위한 군당 정치 사업으로 일환으로 교양사업의 변질 요소를 척결하기 위한 것이었다.⁸¹⁾

소련 군사고문단의 지적과 김일성의 지시대로 1951년 6월 남일은 『군사지식』 편집부 사업을 개선하는 논문을 게재하였다.⁸²⁾ 이는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스탈린의 위대한 이론과 전술을 습득하여 선진

80) “잡지 <군사지식> 편집부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1951년 4월 26일),” 『김일성전집 13』(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369-375.

81)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에프의 보고서에 의하면, 『군사지식』 편집진의 적대적 활동 폭로는 고문단들의 지원하에 작성된 조사자료에 기인한다. 또한, 당시 고령의 군관들을 위해 정치훈련을 대신하여 볼셰비키의 역사 및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기초에 대한 단기 강습으로 구성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교육체계가 도입되었다. 라주바에프,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에프의 6·25전쟁 보고서』 2권, 기광서·백준기·이신철 옮김(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78, 83.

82) 남일, “<군사지식> 편집부 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군사지식』 제3호(1951), 5-12.

군사과학(소련 군사과학)을 정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으며, “조국과 우리 당과 우리 민족의 경애하는 수령의 요구”를 수행하는 것이었다. 특히, “소련 군사과학은 나라의 경제적 및 도덕적 능력을 인식하여 고려”해야 하며, “우수한 군사계획과 경제적 능력, 인민들의 도덕적 정신적 지지로 해방적 전쟁목적을 달성”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1950년 5월 『군사지식』이 전쟁의 도덕적 요소에 대한 강조만을 수행한 것에 대한 비판이며, 계획수립 당시 경제적 능력인 후방의 안정에 대한 불충분한 고려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소련 군사예술은 ‘전략, 작전예술, 전술로 구성’되며”, 한 번의 결정적 전투로 전쟁이 종료되지 않으며, “부단히 장성하는 결정적 타격만이 원수의 반항을 분쇄할 수 있다”라는 스탈린의 말을 강조하였다.⁸³⁾ 1951년 6월의 이 논문은 스탈린의 지침과 소련의 군사과학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함에 대한 반성이었다. 특히, 단기 섬멸전으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연속타격과 섬멸전이 중요함에도 이를 수행하지 못하였고, 전쟁 결정과정에서 경제적 능력을 포함한 후방의 안정(공고화)에 대한 준비가 미흡함을 시인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군사지식』의 사업개선은 전쟁수행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의 영향을 최소화 및 견제하기 위해 소련의 군사과학과 군사기술 그리고 마르크스와 레닌의 원전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김일성과 소련의 의도가 함께 맞물려 나타났던 것으로 보인다.

(2) 1952년 고급군관회의 연설의 중요성과 시사

북한 문헌에 의하면, 1952년 고급군관회의 연설은 “항구적으로 작용

83) 남일, “〈군사지식〉 편집부 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18-21.

하는 요인 즉, 공고한 후방, 군대의 도덕적 품성, 사단의 량과 질, 군대의 무장, 지휘관들의 조직자적 기능 등으로 결정된다고 위대한 스탈린은 가르치고 있다”라며 스탈린의 언급 내용을 소개하면서도 전쟁 기간 중 김일성의 성과임을 강조하고 있다.

『조선전사 27』에서는 1952년 12월 24일 조선인민군 고급군관회의에서 “인민군대를 강화하자”라는 연설을 “불후의 고전적 노작”으로 평가하였다.⁸⁴⁾ 연설의 첫 부분은 전쟁의 본질과 성격에 대해 “제국주의적 침략전쟁”에 대한 “민족해방전쟁”임을 강조하였고, 둘째 부분은 “인민군대의 건설력사와 그의 불패의 힘의 원천, 인민군대의 특성을 분석”하였고, 셋째 부분에서 “전쟁승리의 항구적 요인에 관한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명”하였고,⁸⁵⁾ 넷째 부분에서 “인민군대의 전투력과 전투준비를 한층 강화하여 적의 <신공세>기도를 짓 부시기 위한 과업”을 제시하였다. 이 연설은 “전쟁의 종국적 승리를 앞당기는데서 강력적 지침”이며, “전쟁과 군대에 관한 노동 계급의 혁명 이론을 발전시키는데서 거대한 의의”가 있다.⁸⁶⁾

1953년 1월, 『근로자』 제1호에는 김일성의 고급군관회의 연설문이 게재되었다.⁸⁷⁾ 향후 『김일성전집』에 게재된 내용과 일부 누락되거나

84) 『조선전사 27』(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284-289.

85)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전쟁의 운명은 어떠한 돌발적인 계기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후방의 공고성, 군대의 도덕적 품성, 사단의 량과 질, 군대의 무장, 지휘관들의 조직자적 능력 등 항구적 요인들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가르치시면서 우리나라에 그러한 모든 요인들이 다 갖추어진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조선전사 27』, 286.

86) 『조선전사 27』, 289.

87) 김일성, “인민군대를 강화하자(1952년 12월 24일),” 『근로자』 제1호(1953), RG242, SA2018 Box2 Item34.2

참사되었다. 먼저, 인민군대의 본질과 성격 부분에서는 ‘본질’이라는 제목 부분과 “우리 인민군은 소련 군대의 제 원칙에 입각하고 그의 풍부한 경험을 참작하여 조직됨”을 생략하였다.⁸⁸⁾ 레닌의 교시인 “사상적으로 새 군대와 새 규율, 새 계급의 새 군사조직을 편성”하였다고 공통적으로 언급되었다. 『근로자』 제1호에는 “소련의 위대한 조국전쟁의 경험을 이용함”을 인정하였는데, 이를 조정하여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의 경험의 토대”로 강조하였다.⁸⁹⁾ 또한, 인민군대의 특성에 대해서도 “소련 군대의 풍부한 전투경험을 부단히 섭취”하였음을 삭제하고, ‘스탈린의 노작과 선진적이며 혁명적인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도 삭제되었다.⁹⁰⁾ 아울러, “가장 선진적인 소련 군사과학과 소련 군사예술에 의거 소련 군사예술은 조국해방전쟁의 전체 행정을 통해 긍정적 결과”에 대한 부분도 삭제되었다. 소련의 군사과학과 기술에 의한 군사력 강화 내용을 삭제하여 스탈린의 영향력을 의도적으로 감추고, 김일성의 지도자적 역할을 강화하였다.⁹¹⁾

88) 김일성, “인민군대를 강화하자(1952년 12월 24일),” 『근로자』 제1호(1953), 9.

89) 『근로자』 제1호(1953), 10; 김일성, “인민군대를 강화하자(1952년 12월 24일),” 『김일성전집 15』, 309.

90) 『근로자』 제1호(1953), 10.

91) 이는 소련식 교조주의에 대한 비판과 이른바 ‘8월 종파’ 숙청을 전후하여 군사 부문에서도 민족주의가 강조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함택영, “북한 군사연구 서설: 국가안보와 조선인민군,”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염유, 『북한 군사문제의 재조명』(서울: 한울엠플러스, 2006), 20;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 체제성립사 1945-1961』(서울: 선인, 2005), 811-820.

4) 전쟁 이후 항구적 작전요소의 변용

『조선전사』에서는 항구적 작전요소에 대한 김일성의 연설문이 “전쟁과 군대에 관한 노동 계급의 혁명 이론을 발전시키는데서 거대한 의의”가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⁹²⁾ 실제로 1962년 12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5차 전원회의보고서에서 “현대전은 전방과 후방의 구별이 없는 총력전”임을 강조하며, ‘전민 무장화’, ‘전국 요새화’ 및 ‘전군 간부화’를 주창하였다.⁹³⁾ 이와 같은 총력전 전략은 군사와 경제를 결합시키고 있다.⁹⁴⁾ 이후 북한은 1966년 당대표자회의에서 ‘전군 현대화’를 추가하며 이른바 ‘4대 군사로선’을 확립하고 경제건설과 군사건설의 병진 노선을 천명하게 되었다.⁹⁵⁾

우선, “인민군대를 현대화하며 군사과학과 군사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는 (중략) 우리나라의 실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전민 무장화와 전국의 요새화는 적들의 어떠한 침공도 막아낼 수 있는 가장 위력한 방위체계”임을 강조하였다.⁹⁶⁾ 이는 항구적 작전

92) 『조선전사 27』, 289.

93) 함택영, “북한군사연구 서설: 국가안보와 조선인민군,” 43; 김광수, “조선인민군의 창설과 발전, 1945-1990,” 133-135.

94) 김일성은 “현대전에서의 승패는 전쟁 수행에 필요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장기적으로 원만히 보장 하는가 못하는가에 많이 달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후방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한다. 특히 군사전략상 중요지대를 잘 꾸리고 군수공업을 발전시키며 필요한 물자의 예비를 조성하여야 한다. 또한 일단 유사시에는 모든 경제를 급속히 전시체제로 개편하여 전시에도 생산을 계속할 수 있도록 평상시부터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였다[『김일성 저작선집 4』(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365]. 북한의 정치, 경제, 외교, 심리의 총력전 전략에 대해서는 최영, “북한의 군사전략과 작전술,” 5-7.

95) 함택영, “북한군사연구 서설: 국가안보와 조선인민군,” 26.

〈표 2〉 항구적 작전요소와 북한의 군사전략/군사노선 상관관계

구분	항구적 작전요소	군사전략/군사교리	군사노선
경제	후방의 공고성	총력전 수행전략	전민 무장화, 전국 요새화
사상	군대의 도덕적 품성	정치사상적 우세 교리	기본 토대
군사	사단의 양과 질	기습/속전속결 전략 전략전술적 우세 교리	전군 현대화
	군대의 무장		전군 간부화
	지휘관들의 조직자적 능력		

요소의 첫 번째 요소인 ‘후방의 공고화’가 ‘전민 무장화’와 ‘전국 요새화’에 의한 철옹성 같은 방위체계로 재탄생함을 보여준다.⁹⁷⁾ 즉, 후방의 공고화는 ‘국방 자위’로 이어졌다.

두 번째로, ‘국방에서의 자위’는 ‘군사 분야에서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자체의 힘으로 자기 나라를 보위하는 혁명적 원칙’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해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킨 기초 위에서 전군 간부화, 전군 현대화, 전민 무장화, 전국 요새화’ 등 기본노선의 관철을 강조하였다.⁹⁸⁾ 이렇듯 4대 군사노선의 토대가 정치사상의 무장임을 강조하고 있다. 즉, 스탈린의 항구적 작전요소의 두 번째 요소인 군대의 도덕적 품성이 정치사상적 무장으로 4대 군사노선의 토대가 되었다. 또한, 정신적 요소에 대한 강조는 북한군이 ‘정치사상적 우세’를 추구하는 군사교리의 한 축이 된다.

96) 『김일성저작집 20』, 423, 425-428; 함택영, “북한군사연구 서설: 국가안보와 조선인민군,” 29.

97) 물론 북한의 전국 요새화와 전민 무장화의 논리는 마오쩌둥의 군사사상과도 밀접하므로 이에 대한 해석도 요구된다. 김광수, “조선인민군의 창설과 발전, 1945-1990,” 161, 각주 200) 참조.

98) 사회과학원, 『정치사건』(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98-99, 737-738; 함택영, “북한군사연구 서설: 국가안보와 조선인민군,” 32에서 재인용.

세 번째로, ‘전군 간부화’는 항구적 작전요소의 ‘지휘관의 조직자적 능력’으로 간부의 중요성을 상징하며, ‘전군 현대화’는 항구적 작전요소의 ‘군대의 무장’과 ‘사단의 질과 양’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전군 현대화’와 ‘전군 간부화’는 군사력 강화를 의미함과 동시에 ‘전략 전술적 우세’를 추구하는 군사교리의 한 축이 된다. 이렇듯, 1960년대 북한은 스탈린의 항구적 작전요소를 버리지 않고, 주체사상의 국방 분야의 지침인 ‘국방에서의 자위’의 정책 결정으로 재탄생하였다. 아울러, 전군 현대화와 전군 간부화에 의한 군사력 강화와 ‘전략전술적 우세’ 교리는 기습에 의한 속전속결 전략을 추구하는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

4. 맺음말

스탈린의 항구적 작전요소 5원칙은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한국전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비록 스탈린 독재에 대한 비판과 도그마의 위험성 등으로 항구적 작전요소라는 용어는 사라졌지만, 스탈린 사후에도 5가지 요소의 중요성은 유지되었다. 특히, 스탈린의 항구적 작전요소는 한국전쟁의 결정과 수행, 그리고 결과에도 반영되었다.

먼저 전쟁 결정 및 준비 과정이다. 북한은 군사적으로 일정 부분 강화되었지만, 아직은 장기전을 수행할 만큼 후방이 공고화되지는 못하였다. 스탈린은 기습에 의한 속전속결 전략을 추구하며 항구적 작전요소를 선택적으로 적용하였다. 동시에 미군 참전에 의한 장기전을 우려하여 중국을 전쟁에 끌어들이고 이를 관망하며 전쟁을 지도하였다. 반면에 김일성은 전쟁의 도덕적 요인을 강조하면서 미군의 참전 가능성을 무시하였다. 이에 후방의 공고화를 위한 동원, 수송 등의 문제보다

는 군사력의 질적, 양적 강화에 우선하였다.

잘 훈련되고 무장된 북한군의 공격은 전쟁 초기 전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전투인 서울 북방에서 국군 주력 섬멸에 실패하였다. 이에 북한은 7월 미군의 참전이 본격화된 이후에는 후방 공고화와 지휘체계 조직을 우선적으로 정비하였다. 이는 스탈린과 소련 군사고문단의 조언이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럼에도 전쟁 초기 예비대의 부족, 후방조직의 미흡, 그리고 조직 및 지휘 능력의 부족을 만회할 수 없었다.

1951년도부터 김일성은 전쟁을 주도하기보다는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부대 재편성과 훈련과정에서 소련의 군사과학 이론과 군사 기술을 더욱 강조였으며, 항구적 작전요소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김일성은 전쟁이 종료되어 가는 1952년 12월에는 고급군관회의에서 항구적 작전요소에 대한 연설을 하였다. 이 연설문은 한국전쟁에 대한 교훈 분석과 향후 북한군의 전쟁수행방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전후에도 항구적 작전요소는 총력전 수행전략과 기습에 의한 속전속결 전략, 정치사상적 우세 교리와 전략전술적 우세 교리, 그리고 전민 무장화, 전국 요새화, 전군 현대화, 전군 간부화의 기본적 토대가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스탈린의 항구적 작전요소가 북한군의 전쟁수행에 미친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향후 이를 보완하기 위한 증거 문헌, 작전계획, 명령, 회고록 등에 의한 실증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또한, 1960년대 이후 어떻게 북한군의 전쟁수행 방법이 발전되어 나갔는지, 핵 무력에 의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등에 대해서 살펴보지 못한 한계가 있다.

■ 투고: 2026.02.10. / 수정: 2026.04.03. / 채택: 2026.04.05.

참고문헌

1. 북한 자료

1) 단행본

- 『김일성 저작선집 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 『김일성선집 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 『김일성선집 1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 『조선전사 25』.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 『조선전사 27』.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령도하신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사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2.

2) 기타 자료

- 『군사지식』 제8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보위성 전투훈련국, 1950. RG242, 200858.
- 『군사지식』 제3호. 195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보위성 전투훈련국, 1950. RG242, SA2010 Box3 Item2.
- 『군사지식』 제4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보위성 전투훈련국, 1950. RG242, SA2010 Box3 Item2.
- 『근로자』 제1호. 1953. RG242, SA2018 Box2 Item34, 2.
- 김일성. 『자유와 독립을 위한 위대한 해방전쟁』.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1. RG242, SA2012, Box5, Item45.
- 이:쓰탈린. 『쏘련의 위대한 조국전쟁에 대하여』. 평양: 북조선로동당출판사, 1949. RG242, SA2018 Box 8 Item133.
- “전체 조선인민들에게 호소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 김일성 장군의 방송연설.” RG242, SA2005 Box2 Item23.

2. 국내 자료

1) 단행본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편. 『북한군사문제의 재조명』. 서울: 한울엠플러스, 2006.
- 글랜츠, 데이비드 M.(David M. Glantz). 『8월의 폭풍』. 유승현 옮김. 과천: 길찾기, 2018.
- 글랜츠, 데이비드 M.(David M. Glantz)·조너선 M. 하우스(Jonathan M. House). 『독소전쟁사, 1941-1945』. 권도승·남창우·윤시원 옮김. 서울: 열린책들, 2007.
- 김선호. 『조선인민군: 북한 무력의 형성과 유일체제의 기원』.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20.
- 라주바예프, 블라디미르(Vladimir Razuvaev).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2권. 기광서·백준기·이신철 옮김.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 로버츠, 제프리(Geoffrey Roberts). 『스탈린의 전쟁』. 김남섭 옮김. 서울: 열린책들, 2022.
- 류제수. 『6·25,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북한, 소련, 중국의 전쟁 기획과 수행』. 서울: 책세상, 2013.
- 박종효 편저. 『러시아 연방 외무성 대한정책자료』. 1권. 서울: 선인, 2010.
-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 체제성립사 1945-1961』. 서울: 선인, 2005.
- 스베친, 알렉산드르(Aleksandr Svechin). 『스베친의 전략론 그리고 작전술』. 전갑기 옮김. 서울: 선인, 2018.
- 신범식. “소련의 북한 군사지원.”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1권. 421-464.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와다 하루키의 한국전쟁 전사』. 남상구·조운수 옮김. 파주: 청아출판사, 2023.
- 유용원·신범철·김진아. 『북한군 시크릿 리포트』. 서울: 플래넷미디어, 2013.
- 육군군사연구소. 『소련이 기술한 6·25전쟁』. 계룡: 국군인쇄창, 2020.
- 타무라 나오야(田村尚也). 『제2차 세계대전 직전 각 국가들의 육군교범을 읽다: 독일,

- 프랑스, 소련, 일본 전술교범 비교』. 장형익 옮김. 서울: 황금알, 2021.
- 토르쿠노프, A. V. (A. V. Torkunov). 『한국전쟁의 진실과 수수께끼』. 구종서 옮김. 서울: 에디터, 2003.
- 함택영. “북한군사연구 서설: 국가안보와 조선인민군.”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엮음. 『북한군사문제의 재조명』, 9-61. 서울: 한울엠플러스, 2006.

2) 논문

- 가토프, 레이먼드(Raymond Gatov). “자료: 소련이 보는 현대전의 결정적 제요소.” 배종호 옮김. 『국방연구』 제6호(1959), 125-145.
- 강성학. “북한 군사전략의 역사적 고찰.” 『전략연구』 제11호(1997), 6-60.
- 기광서. “한국전 개입에 나타난 스탈린의 역할 실상.” 『군사』 제63호(2007), 87-112.
- 박찬만. “주북한 소비에트 연방 군사고문단의 역할과 기능(1948-1953).”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박헌욱. “한국전쟁시 북한군의 전쟁지도.” 『전사』 제3호(2001), 75-121.
- 장성진. “북한군 군사교리의 형성과 운용에 관한 연구, 1945-1950.”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최영. “북한의 군사전략과 작전술.” 『북한학보』 제8집(1984), 105-125.

A Study on Stalin's "Permanently Operating Factors" and North Korea's Conduct of War

Jang, Sung Jin (Republic of Korea Army)

This study examines how North Korea adopted and adapted the principles of Stalin's "Permanently Operating Factors" through the Korean War. Both before and after the conflict, North Korea evolved these principles by aligning them with the shifting international political environment and its unique domestic specificities. Even prior to the outbreak of the war, the Korean People's Army (KPA) was indoctrinated with Stalinist military doctrine; notably, on the eve of the invasion, there was an intensified emphasis on the moral factors of warfare. This emphasis was, in part, a strategic necessity dictated by significant temporal and material constraints. Despite these ideological preparations, North Korea faced strategic failure as it could not overcome the rapid involvement of US forces in the war and North Korea's own inferiority in air and naval power. These challenges were compounded by a critical lack of strategic reserves, the instability of rear-area

organizations, and insufficient command and organizational capabilities required for sustained warfare. A pivotal turning point occurred in December 1952, when Kim Il-sung's speech at the conference of high-ranking military officers bolstered his war leadership. This event served as a decisive moment in the history of the KPA, after which the "Permanently Operating Factors" became the fundamental logic and foundation for North Korea's military thought, strategy, and doctrine.

Keywords: Stalin, Korean War, permanently operating factors, North Korean military doctrine, Kim Il-sung, total war, consolidation of the rear area